

duduri Mebook AA004

Japan Inside Out :
The Challenge of Today



일본을 벗기다: 오늘의 시련

Ver. 1.1

Syngman Rhee(이승만) 1941

해설 및 번역 : 박 성현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을 위해 항공모함 아카기(赤城)에서 출격하고 있는 '제로' 전폭기(정식 모델명: 미츠비시 A6M2)



내집마련 지원이
대한주택보증

본 콘텐츠는 대한주택보증(주)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해 설

1

우남(霧南) 이승만은 매력적인 인물이다. 그를 존경하든 혐오하든 그 캐릭터의 에너지와 행적은 매혹적이다. 필자는 20세기 전세계의 정치인 중에 우남만큼 그 행적과 성취가 기이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구질구질하고 비참한 과거를 망각하고 싶어한다. 대한민국은 참담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나라였고, 우남은 그 시대의 한계와 업보를 몽땅 걸머져야 했던 인물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불안하고 못살고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건국 60년이 지난 지금에는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다. 우남에 대해 "고약한 늙은 독재자"쯤으로 치부하고 싶어하는 심리의 바닥에는, 대한민국이 탄생 때부터 고귀하고 강력했던 민족 국가였다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깔려 있을 게다. 이는 착각이다. 모든 고귀하고 강한 것은 천하고 미약한 것에서 나온다. 우리의 뿌리를 알고 싶다면 우남이라는 노인이 일흔 네 살의 나이에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1948년 앞 뒤의 시대적 한계와 업보를 조금은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우남은 1954년 불교 정화 정책을 시작한다. 일제는 매우 치밀하고 악랄한 종교 정책을 폈었다. 천황주의(Mikadoism)는 일본 열도, 일본 국민, 일본의 지배자가 모두 신(神)이 만든 특별한 존재라는 강력한 전체주의적 신정일치(神政一致, theocracy) 믿음 체계였다. 따라서 기독교든 불교든 모두 이 천황주의 믿음 안의 한 부분으로 관리 받았다. 일본의 목사들은 공공연하게 천황주의를 설교했다. 유럽이나 미국과 깊은 연관이 있는 기독교가 이 정도로 왜곡되는 상황인 만큼, 불교는 더 참혹한 상태에 처해질 수 밖에 없었다. 일제는 한국 조계종의 뿌리를 뽑고 우리 불교계를, 처자식을 두고 사찰을 세습하는 대처승들이 주도하는 왜색(倭色) 불교로 변질시켰다.

그 결과, 1950년대 초 전국의 조계종 승려는 채 1백 명도 남지 않았다. 해인사 등 거대 사찰조차 왜색 불교를 전파하는 대처승 가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절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었던 것이다. 우남은 사찰이 일본의 한반도 재진입을 위한 문화적, 종교적 전초 기지가 될 것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는 "대한민국 불교의 뿌리는 화엄사상에 바탕한 조계종에 있다"라는 믿음 아래, 조계종 비구승의 숫자를 급격히 늘리는 한편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절에서 대처승과 그 일가붙이들을 몰아냈다. 이것이 '불교 정화'이다.



<해인사 산문에 걸린 편액은 우남의 글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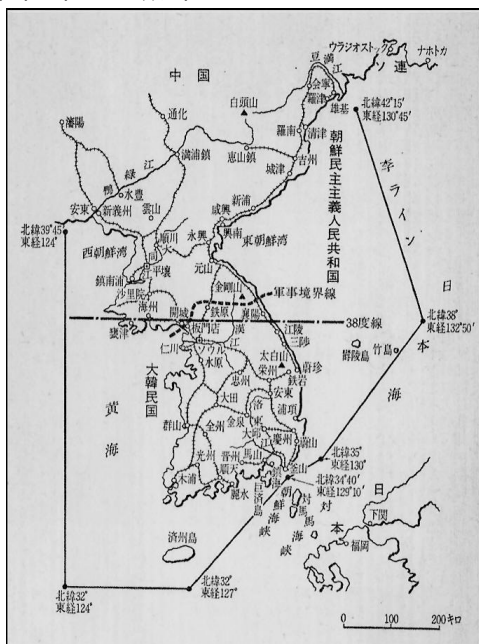
왜색 불교를 전파하는 대처승 일가불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찰을 접수하는 과정은, 요즘 일에 비교하자면, 건물 철거 때에 투입되는 용역회사 직원들의 업무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위험한 일이었다. 따라서 당시 급격히 충원된 비구승 중에는 거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난처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밖에 없다. 거친 사람들을 하루 아침에 스님으로 만들어 절을 접수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아니면, 해인사를 비롯한 전국의 대부분의 사찰을, 왜색 불교를 전파하는 대처승들의 패밀리 비즈니스로 남겨 두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백 명도 안 되는 조계종 비구승을 바탕으로 전국 사찰을 몽땅 접수했던 상황은, 우남이 감당해야 되었던 시대적 한계와 업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사람과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아야 했던 것—이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불교 정화는 우남의 기상천외한 정책의 한 예일 뿐이었다. 1953년에 맺은 한미방위조약이야말로 우남이 이룬 필생의 업적이었다. 당시의 미국은 고립주의(isolationism) 전통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한미방위조약이 맺어진 시점에서 양자간의 방위조약을 맺은 나라는 미국의 전통적 근거지였던 필리핀 밖에는 없었다. 지금까지도 미국과 양자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영국, 일본, 필리핀 밖에 없다. 그나마 영국과 일본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에 맺어졌을 뿐 아니라, 영국은 미국의 핵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조약이고, 일본은 재무장 금지와 맞물려 있는 조약이다.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을 맺지 않으려 하였고 이에 대해 우남은 반공포로를 석방시킴으로써 “조약을 맺지 않으면 휴전을 못 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협박’ 메시지를 미국에 보냈던 것이다. 포로 문제는 휴전 협상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아젠다 중의 하나였다. 반공포로 석방은 휴전협상의 판을 깨버리겠다는 뜻이다. 휴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군과 아무 상의도 없이 3 만 명이 넘는 포로를 덜컥 석방한 일은 상식적인 국제외교 관점에서 보면 ‘강패’ 같은 일이었다. 대충 휴전협정을 마무리 짓고 빨리 철군하기만 원했던 미국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뺨을 때린 행위나 다름 없었다.



<우남이 발표한 평화선. 일명 '이승만 라인'으로 불림. 독도의 소유권은 이 때 명확해졌음>



또한 1952년 1월에 평화선(지금의 경제수역)을 발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일본 및 중국(당시 중공)과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킨 것은 아슬아슬한 치킨-게임(chicken game)이었다. 심지어 우남은 강력한 우방이었던 대만(당시의 중국) 정부의 압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화교¹를 한반도에서 몰아냈다. 이러한 일련의 주권 강화 정책은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골칫거리로 생각되었고 미(美) 국무성 일각에서는 우남을 실각시키기 위한 쿠데타 계획까지 검토되었다. 그래서 우남 연구자들은 “우남을 평생 괴롭힌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미(美) 국무성이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남의 진면목은 해방 이후에 펼쳐진 그의 일련의 정책 보다는 해방 전의 활동에서 더욱 더 잘 보인다. 그는 몇 가지 진기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는 구한말의 개화독립 운동에 있어 가장 나이 어리면서도 가장 인기 높은 청년 연설가였다. 불과 스물 너댓 살 때의 일이었다.

둘째, 1898년에 체포되어 손발톱이 뽑히는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사형수가 되었다. 개화운동 최연소 사형수였다고 추정된다. 6년 이상 옥고를 치르다가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난 후에야 석방되었다. 이씨 조선은 나라가 다 망한 상태가 된 후에야 개화파 청년 운동가 우남을 석방시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밀사로 보내려 했던 것이다. 우남은 이 때 몸이 상해서 평생 타자(typewriter)를 치지 못 했다.

셋째, 곤장 100 대를 맞고 살아 남았다. 곤장은 50 대가 넘으면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100 대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 곤장 100대는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패는 것이나 다름 없다. 고종은 1904년 우남을 석방하면서 곤장 100대를 때린 후에 석방토록 했다. 상식적으로는 죽어야 되었다. 그러나 고종의 비밀 명령 때문이었는지 진짜로 곤장을 치지 않고 시늉만 내었다. 이것이 만약 고종의 명령 때문이었다면 고종의 소심하고 용렬한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혹시라도 신하 중에 우남의 석방에 대해 항의하는 인간이 있을까, 그런 명령을 내렸을 게다.

넷째, 한국인 최초의 아이비리그 박사이다. 우남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에서 석사를, 프린스턴에서 철학 박사를 했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일 뿐 아니라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독립운동을 할 때에 ‘대한민국 망명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Syngman Rhee, First Presi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Exile)이라는 명함을 사용했다. 한마디로 우남의 독보적 입지는 이미 3.1 운동 직후에 확립되었던 것이다.

여섯째, 열강 사이의 갈등과 전쟁이 표면화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한반도에서 무장투쟁을 벌였다가는 애꿎은 백성과 일선 독립운동가들만 죽어나간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20년 동안 꾸준히, 미국의 정치, 언론, 학계 인사들에게 ‘아침 고요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한국인의 존재를 알리고 한반도 독립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래서 그의 독립운동에는 ‘외교 노선’이라는 치욕적인 이름이 붙었다. 우남은 그 당시 독립운동가 중에, 열강의 속성과 국제정치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세계인’이었다.

일곱째, 우남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다. 1925년에 공산주의 운동가들

¹ 당시 화교는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비중을 이루고 있었다. 소공동, 명동, 제물포는 모두 화교 상권이었으며 전국 곳곳에는 화교 학교가 있었다. 우남은 화교가 한 번 출국하면 다시 재입국 시키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 화교 세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6.25 전쟁 중에 많은 화교들이 한국을 떠났다.



과 무장투쟁 노선의 운동가들이 우남을 임시 정부 대통령직에서 해임했다.

여덟째, 그는 한국인으로서는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미국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다. 'Japan Inside Out'(일본을 벗기다).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으로 미국을 사로잡기 꼭 70년 전에, 예순 일곱 살의 처량한 망명 독립운동가가 자신의 사상으로 미국을 평정했다.

2

우남의 '일본을 벗기다'는 일본의 도발에 의해 미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설득력 있게 예언했다. 당시 미국의 여론은, 일본이 태평양 건너 편에서 무슨 짓을 하든 미국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식의 평화주의, 고립주의(isolationism)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다. 생전 들어 본적도 없는 땅, '코리아'에서 온 예순 일곱 살의 늙은이가 이런 미국 사람의 귀청에 대고 "정신 차려!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들이 전쟁을 일으켜! 지금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은 곧 지구 전체의 전쟁²이 될 수 밖에 없어!"라고 큰 소리로, 최초로, 제대로 외쳤던 것이다.

중국에 대한 소설 '대지'를 쓴 미국 작가 펄 벅(Pearl Buck)은 진주만 공습 전에 '일본을 벗기다'를 읽고,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평했다. 펄 벅은 30 년 이상 중국에서 생활했고, 아시아 전체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던 소설가였다.



<펄 벅(Pearl Buck, 1892~1973)>

이 책이 출간된 후 6 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남의 예언대로 진주만 공습이 일어났다.

²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유럽 중심의 전쟁이었을 뿐이다. 미국은 유럽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1941년 12월의 진주만 공습 이후야 비로소, <미국이 참여하는, 진정한 글로벌 전쟁>이 되었다.



필 벽의 말대로 무서운 진실이 눈 앞에 드러난 것이다. 미국 내의 평화주의자들은 모두 할 말을 잃게 되었고 미국은 유럽과 태평양, 두 전선에 대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투입하게 되었다. 1939년 9월 1일 이후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진행되어 오던 제2차 세계대전이, 결국 미국이 참여한 진정한 글로벌 전쟁이 된다는 우남의 예언이 고스란히 실현되었던 것이다.

우남이 '일본을 벗기다'라는 책을 준비한 것은 1939년 9월 1일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다음이라고 추정된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추축국 동맹은 이로부터 1년이 지나야 맺어졌지만 우남은 이미 전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과 추축국 동맹의 <전체주의 진영> 사이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챕터는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 챕터는 첫 문장은 이렇다.

"민주주의 원칙을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개인주의자들이다. 정부의 권력은 그 시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의 기초는 바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남이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용어는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이 만든 용어이다. 파시즘은 민족을 신성한 존재라고 선전하며 민족의 차원, 즉 전체의 차원에서 개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신성한 민족 국가 공동체'를 '전체'라고 불렀다. 무솔리니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민족국가 안에 있다. 민족 국가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족국가에 대한 반대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영미 정치학계에서 '전체주의'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의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에 관한 연구를 내놓은 무렵이다. 우남의 책은, 최소한 영어로 쓰인 책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전체주의'라는 말을 썼다. 그는 일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본인의 심리에서는 개인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이, 7 천만의 작은 전신(戰神)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하나의 전신(戰神)이라고 믿는다."

1941년 12월 진주만 공습 직후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의 지식인들, 언론인들,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승만이 어디에서 온 인간이야?"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코리아'란 곳이 어디야?"

이 책은 냉혹한 열강들의 국제정치 무대에 한국의 존재와, 한국 독립의 필연성을 알렸다. 1941년 12월 7일(현지 시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순간, 이 책은 한국의 독립을 확정지었던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다.

"우리가 감히 예상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일찍,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일본인들의 팽창을 꺾고 일본 영토 안으로 그들을 구겨 넣을 것이다. 그리고 평화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때 우리 한반도는 전 세계의 자유국가들과 나란히 설 것이다. 그 때 우리 한반도는 또다시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서 세계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당시 미국을 지배하던 평화주의적 풍조에 대하여 "자유를 즐기는 사람은 많지만 자유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비판하면서 전체주의자들에게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간첩의 행동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우남은, 일본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평화주의자들에게 이렇게 통렬하게 이야기한다.

"당신들이 그토록 평화를 사랑한다면, 히틀러의 베를린, 미카도³의 도쿄, 무솔리니의 로마에 가서 평화를 설교하라. 전쟁은 이곳 미국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20년 전만해도 외국인을 부를 때에는 항상 비하해서 불렀다. 양놈, 코쟁이, 되놈, 로스개, 쪽발이, 감둥이, 흰둥이...심지어는 우남의 부인에 대해서도 '호주댁'이라고 불렀다. 프란체스카는 오스트리아 출신 실무 외교관이었다. 해방 직후 한국 사람들은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같은 나라라고 착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프란체스카를 비아냥거리며 '호주댁'이라고 불렀다.



<1934년 결혼 당시의 우남과 프란체스카(Franziska Donner)>

지금은 사정이 좀 나아졌을까? 최소한 프란체스카에 대해서만큼은 아니다. 2010년 8월 '프란체스카 영부인'으로 구글링 해 보면 약 12,000 개의 결과가 나온다. '프란체스카 흡혈귀'로 구글링 해 보면 그 열 배인 약 120,000 개의 결과가 나온다. 2005년에 방영된, MBC의 흡혈귀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 덕분이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프란체스카와 흡혈귀를 함께 묶어 생각하는 것이다. 차라리 '호주댁'이라는 옛날 비아냥이 훨씬 더 낫다.

프란체스카는 남편을 깊게 영혼으로부터 이해하고 사랑한 여인이었다. 우남의 최대의 행복은 프란체스카라는 아내를 얻었던 것일 게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남은 고문 후유증 때문에 타자를 치지 못 했다. '일본을 벗기다'의 원고는 프란체스카가 정리했는데 원고 내용이 계속 바뀌는 바람에 손톱이 다 짓물렀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후에 우남은 인세를 받아 평생 처음으로 돈 같은 돈을 만져보게 되었다. 그 때까지 프란체스카에게 아무 변변한 선물도 하지 못 했던 예순 일곱 살의 늙은 남편은 인세의 일부를 떼어,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모두 시들은 아내에게 주면서

³ 일본 '천황'의 다른 칭호



“사고 싶은 것을 사시오. 나는 당신에게 아무 것도 해 주지 못 했소”라고 말했다. 프란체스카는 때깔이 나는 코트를 샀고, 이 옷은 지금도 이화장에 걸려 있다.

1965년 7월 우남이 하와이에서 숨지자 대한민국은 국장, 국민장, 가족장을 둘러싼 장례 문제로 발각 뒤집혔다. 정치적 부담을 두려워한 박정희는 국장을 포기했고⁴, 장례는 결국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말이 가족장이었지 수 십 만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우남의 운구에 참여해서 슬픔을 함께 했다. 우리 선배 세대들은 우남의 공적과 과오에 대해 깊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국장조차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 한 박정희였지만 그의 조사는 당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우남의 모습을 생생히 그리고 있다. 국무총리 정일권이 대독한 조사를 요즘 우리 말로 바꾸면 이렇다.

“당신은 일흔 살이나 된 노구를 이끌고 광복된 조선 땅에 돌아 오셔서, 좌우 이념 갈등과 미국-소련 사이의 알력을 극복하고 새 나라를 세우셨습니다.....당신이 이루신 무수한 업적 중에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을 전세계에 알린 쾌거 중의 쾌거로서, (독도를 포함하는) 평화선을 선포하고 반공 포로를 석방한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비록 정권 말기에 간신배 이기붕 일당을 잘못 기용하시어 실각하셨지만 이는 당신 평생의 공적을 가릴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당신은 조국을 위한 어린양으로 희생되었습니다.....대통령을 맡고 있는 제가 불민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조국에서 임종토록 하지 못 한 점, 용서해 주십시오.....당신이 직접 만든 군대의 젊은이들이 묻힌, 당신이 만든 묘역인 국립묘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길지를 골라 이제 당신을 땅에 묻습니다....공산 침략을 무찌르다 숨진 국군 장병들의 혼령을 거느린 막강한 호국신(護國神)이 되어 이 땅을 지켜 주소서.....”

3

우남의 원문(영어) 문체는, 1940년대에 영어로 출간된, 국제정치에 관한 서적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간결하고 호흡이 빠르다. 진지하게 말하는 듯 하다가 통렬한 아이러니를 사용한다. 이 책은 유럽 중심의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이 참여한 글로벌 전쟁으로 변진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일본이 패망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우남의 영혼 밑바닥에서 나온 글이다. 열강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의 결과 일본이 망하고, 그 패망에 독립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믿어 온 우남의 평생의 비전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에, 간결하고 전율스런 문체로 쓰인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는 날을 꿈꾼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다.

The title “Emperor” for their ruler is a misnomer. The Japanese do not call him emperor, but *Tenno*(천황), the Heavenly King. Every time they mention this word *Tenno*, they bow their heads or doff their hats.

⁴ 우남은 박정희에게 여러 번 “한국에 돌아가서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박정희는 이를 거절했다. 그 대신 박정희는 우남에게 “돌아가시고 난 후 국장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했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의 지배자에 관한) '황제'라는 칭호는 오칭이다. 일본인들은 그를 '황제'가 아니라 '텐노(천황)'라고 부른다. '하늘의 황제'. 일상 생활에서 말을 하다가도 '텐노'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머리를 조아리거나 (모자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모자를 들어올리며 고개를 숙인다.

끝으로 이 요약본 전자책의 번역/출간을 허락해주신 우남의 수양 아드님 이인수 박사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또한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김일주 박사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발칙하고 천박한 번역에 따르는 상스런 문체와 터무니 없는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다. 이 전자책이 우남에게 큰 모욕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본문 발췌 요약

(요약의 목차는 책의 목차를 그대로 따른다.)

0. 서문

나는 일본과의 전쟁을 원하는가? 아니다. 나는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한다. 지금이라도 일본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다.⁵ 이 책은 그 이야기를 다룬다.

나는 기질로 보나 종교로 보나 평화주의자일 수 밖에 없다. 유교 집안에서 자라 서당에서 공부했다.⁶ 공자는 힘에 의한 지배를 야만적 지배라고 하지 않았던가?

한국은 약 2천년 동안 높은 수준의 유교 문화를 만들어 내려왔다. 한국의 철학, 정치, 시,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평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기원전 231년에 만들어진 나라의 이름 자체가 '아침 고요의 대지', 즉 '아침 평화의 대지'이다.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평화로우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다—역주), "평화와 함께 하시길!"(안녕히 계십시오—역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서구 문명의 도래와 함께, 현대식 무기의 우월성을 이용한 군사 정복의 시대가 왔다. 서구를 가장 재빠르게 모방하는 모범생인 일본은 서구의 군국주의 멘탈리티와 현대식 무기 기술을 고스란히 배웠다. 그리고 온갖 입에 발린 말로 이씨 조선의 무능한 정부를 꼬였다. "저희랑 수교 하시죠!"

이씨 조선 정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모두 개방하고 말았다. 청일전쟁이 끝난 해였던 1895년에 나는 거대한 재앙이 닥쳐오고 있던 것을 느꼈고 국민들에게 이 위기에 대해 홍보하기 시작했다.⁷

그러나 이씨 조선 정부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 했다. 정부 안의 보수파와 국민파(nationalist party) 사이에 권력투쟁이 전개되어 보수파가 승리하게 되자 나와 동지들은 모두 체포되어 감옥에 갔다. 나는 그 곳에서 거의 7년⁸을 보냈다.

1904년 러일전쟁이 터지자 국민파가 다시 정권을 잡았고 나는 감옥에서 풀려났다. 일본은 이미 이씨 조선의 마지막 숨통을 조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1904년 11월 민영환 공과 한규설 대신이 미국 정부에 보내는 밀서를 가지고 서둘러 한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과거의 일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뜻은, 외부세계에 대해서는 감춰졌던 진실을 내부로부터 볼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나 그 때나, 모든 교육받은 일본인들은 어떤 일이 어느 때쯤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입밖에 내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미국인들은 자신이 어떤 집단을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 과거에 단지 몇 마디 외

⁵ 우남은 미국이 중국과 한국에 대폭적인 군수물자를 지원해서, 중국과 한국으로 하여금 일본과 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과연 그의 입장을 '외교노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⁶ 우남이 배재학당에 들어간 것은 스물 한 살 때인 1895년의 일이다.

⁷ 우남은 배재학당 입학과 동시에 '한성협회'라는 청년조직 활동을 시작했다.

⁸ 1898~1904까지 투옥됨. 사형수가 되었음. .



교 성명을 제대로 냈었더라면, 혹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더라면 지금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이제는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 막게 생겼다. '일본'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빨리 해결할수록 좋다.

미루는 것은 해결이 아니다. 산불이 점점 더 가까이 타 들어 오고 있다. 그 전엔 아주 먼 곳에서 타고 있는 산불이었다. 마치 화성에 난 산불이라고 느꼈었을 게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이제 미국인들은 뜨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⁹ 산불을 무시한 대가로 미국은 이제 동양에 굳혔던 모든 것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기업의 투자, 선교회의 시설, 대학, 병원...모든 것이 날아갔다.

일본이 "태평양은 우리 뒷마당이야!"라고 말할까 두려워서 이제 태평양에서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인가? 일본이 필리핀을 원할까 두려워서 제대로 된 필리핀 정책을 세우기를 계속 미룰 것인가? 일본이 반대할까 두려워서 태평양의 섬들에 요새를 설치하거나, 혹은 설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하지 않을 것인가? 일본인 이민자를 규제하면 일본이 "이것은 일본 민족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항의할까 두려워서 이민자조차 규제하지 않을 것인가? 그들이 미국 군함¹⁰을 침몰시켜도, "일본인들은 매우 민감하고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어서 그 감정을 상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웅얼거리면서 참을 것인가? 지금 미국인들은 바로 이런 식의 비겁하고 원칙 없는 풍조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데도 산불이 아직도 먼 곳에서만 타고 있다고, "한국 문제, 만주 문제는 한국인들, 만주인들더러 풀라고 해!"라고 말할 것인가!

이 책에서 나는 바로 위와 같은 난처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를 보면 된다. 나는 중일 전쟁을 다룰 때에 그 전체가 아니라 외국인과 관련된 부분, 특히 미국인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전체주의라 불리는 거대한 전쟁 기계가 다가옴에 따라 문명과 생명은 지푸라기처럼 부서져서 흩어지고 있다.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고 더 참혹하게 파괴할 것이다. 겁에 질린 세계는 이렇게 문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이지? 왜 저들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 답은 단순하다. 동양의 미카도, 유럽의 나치와 파시스트들은 세계를 정복하기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기계화된 막강한 군대를 앞세워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1. 일본의 '신성한 사명'과 일본인의 전쟁심리

만약 미국인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의 세계 정세를 직시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세계의 절반이 민주주의이고 나머지 절반은 전체주의인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 결국 국 민주주의든 전체주의든, 둘 중 하나로 결판나야 한다.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것이 미국의 사명이 되었다. 십 년 전, 혹은 이 십 년 전에 미국이 움직였었다면 훨씬 더 쉬울 뻔 했다. 그러나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가래로 막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 미국인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전체주의 국가들은 착실히 준비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⁹ 1937년부터 시작된 중일전쟁을 뜻함

¹⁰ 1937년 12월 12일, 양자강에서 미국의 초계정 패네이(Panay) 호(號)가 일본 전투기의 공격으로 격침된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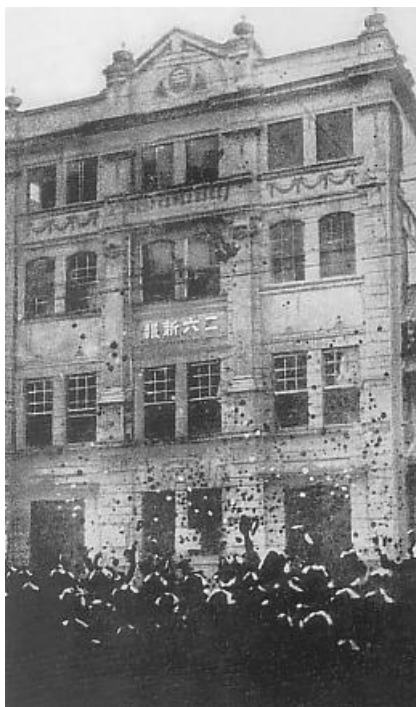


서 미국이 평화에 대한 헛꿈을 계속 꾸다가는 파멸이 닥칠 뿐이다.

물론 지금 미국 일각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무기 등 물질적 차원의 준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질은 물질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 국민이, 거대한 위협이 닥치고 있다는 진실, 이 위협을 피할 수 없다는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미국 국민의 정신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은 정신의 힘을 잘 안다. 지금 일본은, 독일을 제외한 어느 나라보다 더 지독한 <전쟁 심리>(war psychology)로 무장되어 있다. 일본인들의 심리와 믿음은, 실용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서구인들에게는 일종의 우스꽝스런 환각처럼 보일 게다. 서구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토록 “근대화 된” 나라의 사람들이 그러한 이상하고(incongruous) 미스테리한 거짓말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일본인들이 그런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점,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이 수 천 만 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1919년 5월 9일 일본 신문 니로쿠신포(二六新報)¹¹를 인용하여 ‘저팬 애드버타이즈먼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인류 복지를 진흥하는 것이 일본 황실의 사명이다. 하늘이 일본 황실에 이 사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이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마땅히 인류의 숭배와 찬양을 받아야 하며 영원히 그 지배권을 가져야 한다. 일본 황실은 신(神)으로서 존경 받아야 하는, 자비와 정의의 화신이다. 일본 황실은 육천만 일본인 뿐 아니라 지구 위의 모든 사람의 어버이이다....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사이의 분쟁은 따라서 일본 황실의 완전무결한¹² 정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만약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¹³이 인류를 전쟁에서 구하고자 한다면 일본 황실을 연맹의 수장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연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응징 수단과, 국가와 인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질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황실에만 존재한다.¹⁴



중지임. 1893년에 창간되어 1940년에 폐간됨. 다이쇼 시대 초기
지지하다가 폭도의 습격을 받기도 했음. 우남이 인용한 글의
가 '중도 성향 지식층'의 상식이었다는 사실이 더 쇼킹함.

어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의 어머니(예수의 외할머니)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임신'이었다는 믿음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
문지 않은'을 뜻하는 라틴어 'immacula'에서 나온 말임.

의 특징이, 세부적 사항에 대한 극도의 합리성과, 세계관 및 정치
결합해 있다는 점에 있다고 밝혔다. 천황주의, 즉 미카도이즘은
성 주체사상은 미카도이즘과 매우 유사하다. 위 글에서 일본 황
김일성 주체사상이 된다.

텐츠는 대한주택보증(株)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913년, 온건한 헌정질서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폭도의 습격을 받은 니로쿠신포>

일본의 지배자에 관한 '황제'라는 칭호는 오칭이다. 일본인들은 그를 '황제'가 아니라 '텐노(천황)'라고 부른다. '하늘의 황제'. 일상 생활에서 말을 하다가도 '텐노'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머리를 조아리거나 (모자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모자를 들어올리며 고개를 숙인다. 천황은 일반 황제나 왕과는 격이 다르다. 천황은 일반 황제나 왕 위에 존재한다. 니토베 이나조 같은, 서양에서 공부한 뛰어난 기독교 지도자조차 천황에 대하여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일본인들은 또한 일본의 땅조차도 지구의 여타 땅과는 다르다고 믿는다. 태초의 신 이자나미와 이자나미가 결합하여 일본 열도를 낳았고, 그 다음에 태양신 아마테라수를 낳았다고 믿는다. 지구의 다른 땅은 일본 열도가 생기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지스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아마테라수의 직계 자손이 바로 천황이라고 믿는다. 고사기(古事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모든 국가는 일본에 대해 마땅히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 열도가 생김으로써 세계가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성함에 관한 일본인들의 믿음은 천황과 일본 열도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인들은 자기 자신 역시 신성하다고 믿는다. 일본의 원주민들은 신들이었고, 그 후손이 지금의 야마토(大和) 종족, 즉 일본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태양의 씨앗'(日本)이라고 부른다. 일본인들은 개인 각자는 보잘 것 없는 존재이지만 일본인 전체가 되면 전능(全能)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7천만의 작은 신(神)들로 이루어진 <전쟁 기계>, 그 자체인 것이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믿기에 다른 민족의 종교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 황제건, 땅이건, 국민이건, 심지어 일본 땅에 사는 벌레까지도 신성하다고 믿고 싶으면 얼마든지 믿어도 된다. 어쨌거나, 인간이 신성한 존재로부터 생겨났다는 이론은,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라는 서구식 진화 관념보다는 좀 더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는가? 그러나 이 믿음이, 미카도가 다스리는 세계를 위한 정복 전쟁을 합리화하는 기초가 된다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카도가 유일한 '하늘의 황제'라는 것을 믿게 되면, 미카도만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존재이고, 군사력을



사용해서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된다. 세계 평화는 일본의 지배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식이다.

현재 일본이 아시아와 극동에 대해서만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당장은 미국과 대결하지 않겠다는 조심성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조만간 아시아의 신질서를 세계의 신질서로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남만주철도회사 총재였던 마쓰오카 요스케는 1931년에 이렇게 말했다.

“야마토 민족의 사명은 인류가 악마처럼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원하는 것, 인류를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일본인들은 개항 이후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이 모두 황실의 선조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황실 선조의 보살핌으로 앞으로 더욱 더 경이로운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신토이즘(神道, Shintoism)을 따르는 일본인들은, 극단적인 애국주의와 결합된 특이한 <전쟁 심리>를 길러 왔다. 일본인들은 섬으로부터 벗어나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숙원을 오랫동안 간직해 왔으며 이 민족적 숙원은 해외 정복을 의미했다. 이 숙원은 자존심 강한 무사 계급—사무라이를 길러내었다. 숙원은 사상을 낳는다. 서구 열강과의 교류는, 서구 열강의 강력한 사상인 민족주의 및 애국주의를 일본에 소개했다. 그리하여 사나운 사무라이 정신과 민족주의, 애국주의가 결합하게 되었다. 쇼군 시대 때에 봉건 영주(다이묘)에게 바쳤던 충성은, 이제 민족국가에 대한 극단적 쇼비니즘(chauvinism)으로 바뀐 것이다.¹⁵

무기의 측면에서나 정신의 측면에서나, 막강하게 무장한 수 천 만의 적(敵)이 빠르게, 모든 저항을 무력화시키면서 진군해 오고 있다. 그러나 도쿄의 전쟁광들은, 군사력의 우월성과 황실의 신성(神性)을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한가지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 그들 문턱에 존재하고 있는 2천 3백만 한국인이 그들에 대해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맹렬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했던 것이다. 또한 4억 5천만 중국인들이 분열을 극복하고 일본에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던 것이다.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에게는 이제 무기와 군수품만 있으면 된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무기와 군수품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일본의 발목을 단단히 붙들어 매어 둘 수 있다. 나는, 지구의 모든 민족이 선과 악으로 나뉘어 싸우는 거대하고 참혹한 아마겟돈의 어렴풋한 그림자를 35년 전인 1905년경에 보았다. 나는 그 후 수 십 년 동안 미국인들에게 이 아마겟돈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해 왔다. (지금 중국과 한국에 대해 무기와 군수품을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면) 이 아마겟돈을 막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¹⁵ 우남은 일본의 전체주의 심리의 특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 신토이즘에 바탕한 사무라이 정신은 처음부터 호전적이었다는 것을 꿰뚫어 본다. 근대에 들어 서구의 민족주의, 애국주의, 쇼비니즘을 받아들여, 과거 다이묘에 대한 사무라이 충성이 이제 국가에 대한 맹목적이고 호전적인 충성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밝힌다. 일본의 전체주의 심리의 원형(archetype)이, 신토이즘과 결합한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주장을 세계에서 최초로 한 사람은 우남이었다고 추정된다. 그래서 우남의 책 ‘일본을 벗기다’는 태평양 전쟁에 투입된 미군 장교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2. 타나카 메모리얼

전통 시대에도 일본의 사무라이 전사(戰士) 계급은 세계 정복의 꿈을 버린 적이 없다. 당시의 세계는 아시아 대륙이었다. 그러나 서양이 동양으로 진입하자 사정이 바뀌었다. 야심만만한 사무라이들은 근대 무기의 우월성을 즉시 알아 보았고 자신들의 야심에 이 무기 체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마치 일본 열도에 태양이 떠오르듯, 서양의 근대 무기 체계를 흡수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전체를 정복하겠다는 야망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일본은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으며 1910년에는 합방을 저질렀다. 기존에 한국과 우호 조약을 맺고 있었던 모든 문명 국가들이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백 퍼센트 동의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다음과 같은 조약을 맺고 있었음에도, 1905년에 한국이 아닌 일본을 지지했다.

다른 열강이 미국 혹은 한국에 대해 불공정하고 억압적인 처사를 취하는 경우 자신의 정부조직을 동원하여, 피해를 당한 당사국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렇듯 미국은, 일본이 한국과 맺었던 일체의 조약을 휴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양해했었다. 이제 일본은 미국과 맺었던 일체의 조약을 휴지로 만들고 있다. 지난 세월 동안 일본이 거두어들이던 일련의 승리는 일본인의 심리를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믿는다. 훈련과 무장을 통해 동양 뿐 아니라 서양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나라 전체에 퍼져 있다. '타나카 메모리얼'은 바로 이러한 국민적 야망을 나타내는 문서이다. 그 문서에 나타난 세계 정복은 그들에게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전통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야망을 근대의 용어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정복의 범위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전체로 확장되었을 뿐이다.

일본인들에게 타나카 메모리얼이 차지하는 의미는, 독일인에게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 차지하는 의미와 같다. 두 문서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블루-프린트이다. 히틀러 본인은 세상이 그의 책을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더라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뿐이다. 이제 유럽은 히틀러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반면 타나카는 일본의 야욕을 감추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 그래서 메모리얼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1929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의미심장하다.

동아시아의 난관을 해결하려면 일본은 <무기와 피>에 의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해야 한다.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정복해야 한다...중국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을 파멸시켜야 한다....(미국을 파멸시키고) 중국을 정복하고 난 후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동남아 국가들이 굴복할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일전쟁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중국에 대한 완전한 지배는 일본의 구상



에 있어 핵심을 구성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군국주의자들이 자신의 힘에 대해 과신을 하는 순간 그들의 패망이 시작된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중일전쟁에서 두 개의 치명적 실수를 범했다.

첫째,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해서 단결시켰다. 중국인들의 거센 저항에 의해 일본은 단단히 발목이 잡혔다. 해안 지역만 정복했을 뿐이다. 1936년에 전쟁 준비를 끝낸 일본은 서구 열강 및 소련 중 하나를 골라 공격할 태세였다. 그러나 소련이 시베리아 국경에 대한 방위태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일본은 대신 중국을 공격했다. 손쉽게 중국을 장악한 후에 중국의 인력과 자원을 사용하여 미국과 한판 전쟁을 붙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위협이 영국을 유럽 및 지중해에 붙들어 매어 두고 있던 상황에서, 중일전쟁은, 일본이 미국의 등쪽에 칼을 꼽은 것을 의미한다. 먼저 중국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장악한 후, 미국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알아차리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 기습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것이 바로 일본의 전략이다.¹⁶

둘째, 중국의 <문호 개방>¹⁷을 너무 빨리 폐기시켰다. 중일전쟁 초기의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일본은 모든 백인과 그 사업기반을 중국으로부터 축출하고 일본인들이 중국을 백 퍼센트 장악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일본은, <문호 개방> 폐기에 대해 감히 어떤 열강도 일본과 전쟁을 벌이지 못 한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계산법은 잘못 된 것이다. 과거 한국에서 했듯이 이빨과 발톱을 깊이 감추고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한국 병탄 과정에서 택했던 조심스런 방법 대신, 일본은 성급하게 <문호 개방>을 폐기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들이 사는 민간인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자행했고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마구 파괴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미국 국민으로 하여금 처음으로 일본의 위험성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로 하여금 중국의 장개석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물자지원을 제공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유럽에서는, 1940년 가을까지는 영국을 굴복시킨다는 히틀러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영국에 대한 미국의 물자지원 역시 꾸준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한국에 대해 물자를 지원하고, 유럽에서는 영국에 대해 물자를 지원함으로써 미국 본토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일을 막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그리하여 이제 독일과 일본은 미국을 정면으로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마침내 1940년 9월 26일 저팬 타임즈는 이렇게 미국을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의 정당한 팽창에 대해 미국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제 일본은 확신하게 되었다. 만약 미국이 유럽 전쟁에 끼어든다면 일본은 독일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저팬 타임즈가 이러한 협박을 실은 다음날인 9월 27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사이에 추축국 동

¹⁶ 우남은,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선전포고 없는 기습 공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다.

¹⁷ <문호 개방>은 'Open Door'로 표현된다. 중국이 어느 특정 열강에 전속된 식민지가 아니라 여러 열강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벌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당시에는 '<문호 개방> 정책'(Open Door Policy)이라고 불렀다. 영국과 미국은 <문호 개방> 정책을 견지했다.



맹이 공식적으로 맺어졌다. 일본은, 미국이 유럽 전쟁에 끼어들기 전에 독일이 유럽을 평정할 것이라는 데에 도박을 걸은 것이다. 추축국 동맹 조약의 제3조는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일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일본, 독일, 이탈리아 세 나라 중 어느 한 나라를 공격하는 경우, 세 나라가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을 동원하여 그 공격에 대항한다는 내용이다. 제4조는 이렇게 쓰여있다.

“유럽의 문제 혹은 동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쟁은 이제 그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는 바, 어떠한 나라이든 이 전쟁에 끼여든다면 이는, 우리 세 나라의 2억5천만 국민의 일치단결된 힘에 도전하는 행위일 뿐이다.”

1940년 10월 10일 마츠오카 요스케 수상은 기자 회견을 통해 이렇게 협박했다.

“현재 유럽과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관하여 중립을 지키고 있는 미국이 앞으로도 유럽 및 중국의 상황에 개입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면, 차라리 상상조차 하기 두려운 거대한 재앙이 인류에게 닥칠 것이다.”

외무성 장관 고노에 공작 역시 1940년 10월 6일에 이렇게 협박했다.

“태평양에서 전쟁이나, 평화냐의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만약 미국이 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의 지도력을 인정한다면 일본도 북중남미 대륙에 있어서의 미국의 지도력을 인정할 것이다. 만약,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긍정적인 협력을 하게 된 참뜻을 이해하는 것을 미국이 거부한다면, 그리하여 일본-독일-이탈리아 사이의 동맹이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것이라는 기존의 믿음을 미국이 계속 고집한다면, 미국은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일본은 발악적으로 미국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에도 이런 협박을 일삼았다. 그 때마다 기적적인 성공을 거두곤 했다. 이제 수상과 외무성 장관이 나서서 미국을 협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작태에 대해 일부 미국인들은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면서 “나라를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모욕감을 느끼며 몹시 분노하고 있다. 히틀러와 미카도, 즉 베를린과 도쿄의 강패들이 미국에 대해 주먹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모습은, 나치즘과 미카도이즘의 실체를 모르던 미국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나치 독일의 야욕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알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 사이의 거대한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진실에 대한 확신이 널리 퍼지고 있으며, 중국에서 일본이 범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정보가 알려질수록 미국인의 분노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제 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대서양과 태평양, 두 대양에서 막강한 해군력을 구축하는 일은, 서두를수록 더 좋은 일이다!”



3. 일본, 가면을 벗을 준비를 끝낸다

일본은 1931년 9월 만주 침략을 시작하여 이듬해 3월 꼭두각시 정부인 만주국을 세웠다. 그 직후부터 일본 정부와 국민은 한 목소리로, 미국 및 영국과 맺었던 <해군력 억제 조약>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때부터 일본 안에서는 “1935년과 1936년은 일본 제국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라는 구호가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도대체 왜 <결정적인 시기>가 된다는 말인가? 이 시기는 일본의 물리적, 심리적 전쟁 준비가 완성되는 클라이맥스가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일본인들은 이 구호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해군력 억제 조약> 수정 요구는 바로 이 클라이맥스로 치닫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였던 것이다.

잠시 <해군력 억제 조약>에 대해 살펴 보자. 1921년 워싱턴 회의는 미국-영국-일본 사이의 해군력의 비율을 5-5-3으로 정했다. 그 후 1931년 런던 회의에서 이 비율은 10-10-7로 조정되었다. 이 조약은 1936년에 갱신되든가 혹은 수정되도록 합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조약 만료 3년 전인 1933년¹⁸에 조약의 수정을 요구하는 전국적 여론 캠페인을 시작했다. 기존의 10-10-7 비율은 불공정하며 차별적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만들어졌다. 일본 국민 전체가 10-10-10 비율, 혹은 무제한 경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1933년에 전쟁 준비를 거의 다 완료한 상태였던 것이다.

일본의 해군력은 1935년 런던에서 다시 열린 <해군력 억제 회의> 무렵에 이미 998,208톤의 무게로서 영국과 미국을 누르고 세계 1위였다. 일본 해군제독 토고는 1935년에 이렇게 말했다.

“해군력 현대화의 결과, 일본 해군은 동양 어느 곳에든 해군력 전체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동양의 해역을 확실히 다스리는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지 않는 한, 일본은 극동에서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그러나 지난 백 년 동안 동양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일부 열강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 이 열강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해군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정이 군축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제 일본 국민 전체는, 일본이야말로 동양에 존재하는 유일한 <지역 안정을 달성하는 열강>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결국 일본은 1935년 12월 런던 <해군력 억제 회의>에서 탈퇴함으로써 아직 효력이 1년이나 남아있는 조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말았다. 아사히 신문은 12월 14일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런던 <해군력 억제 회의>가 붕괴한다면 모든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 미국은 공격력을 가지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이 일본의 (평화적) 계획에 대한 가장 심각한 반대세

¹⁸ 이 해는 히틀러가 집권한 해이다. 한편 이탈리아는 이미 1922년부터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당이 집권하고 있었다.



력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영국과 미국이 그 동안 견지해 온 세계 정책에 비추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프로파간다의 미국의 국내 여론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미국 내의 평화주의자들을 노리고 있다. 런던 회의가 붕괴하고 10-10-10을 달성하지 못 하게 되자 일본은 이제 무제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무제한 경쟁에서는 미국을 이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민들에게 “공정성 및 정의에 대한 관념”을 가질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 정부가 해군력을 증가하는 정책을 펴지 못 하도록 프로파간다를 펼치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수법은 과거에도 잘 들어먹었다. 일본은 앞으로도 이 프로파간다 전술을 사용할 것이다. 미국인들은,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달콤한 거짓말에 잘 속는 경향이 있으며 외국 정부에 대해 비판을 삼가는 경향이 있다. 미국인들은 오히려 자기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자유를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나라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으려는 배려 때문에, 이제 일본을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하나의 패션이 되었다. 교활한 일본 외교관들은 미국인의 이러한 특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를 백 퍼센트 활용한다.

4. 중일 전쟁의 시작

<결정적 시기>인 1936년이 되고 <해군력 억제 조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나자 드디어 일본은 그토록 떠벌려 왔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동서양의 모든 정치-군사 분석가들은 일본이 소련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실제로 일본은 시베리아 국경에 군대를 결집시켰다. 그러나 일본은 두 개의 심각한 장애에 부딪혔다. 첫째 소련이 이미 막강한 수비 태세를 갖추었던 것이다. 둘째, 미국의 여론이 일본의 반(反)코민테른¹⁹ 전쟁을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의 지지가 없이는 소련을 쉽게 꺾을 수 없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자. 1935년에 일제의 관동군은 외몽고로 진격하여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바이칼호(湖) 부근에서 차단해서 서부 시베리아를 점령하기 위해 움직일 태세였다. 1935년 7월, 도쿄 주재 소련대사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격렬히 항의했다. “일본과 만주국이 국경 분쟁을 도발한다면 소련과 일본의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며 극동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소련은 바이칼호(湖) 북쪽을 경유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제2노선의 준공을 서둘렀다. 또한 소련은 ‘붉은 군대’ 1백 30 만 명과 극동군 2십 5만명, 합계 1백 55만명의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 전체의 육군과 맞먹는 규모였다.

일본 군사 전략의 특징은 이길 확률이 반반이면 전쟁을 미루고 다음 기회를 노린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일본이 승리한 모든 전쟁은 적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 전혀 일본의 계획을 알지 못 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었다.²⁰ 소련의 준비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소련과의 전쟁을 미

¹⁹ 소련이 혁명을 수출하기 위해 만든 국제 공산주의 운동.

²⁰ 우남은 여기에서도,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시작할 경우, 그 출발점은 선전포고 없는 기습 공격이 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루어야 할 명분이 필요했다.

일본이 중대한 약탈 전쟁을 벌일 때에는, 우연의 일치인지, 동양의宿命주의인지, 일본 신(神)들의 영험한 보살핌 덕분인지 몰라도 반드시 무슨 조짐이 있다. 이번에는 추위가 그 조짐이었다. 일본군은 추위 때문에 잠시 소련 침공을 미룬다고 결정했다.

강패는 쥐어터질 것 같은 상황 앞에서는 바로 꼬리를 내린다. 도쿄는 모스크바에 곧바로 추파를 보냈다. 국경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일본과 소련의 위원 숫자가 같아야 된다는 기존 주장을 포기했다. 오카다 게이스케 수상은 소련과 전쟁을 벌일 배짱이 없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1936년 2월, 청년장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청년장교 혁명 사건>이다. 장교들은 수상 관저를 점령하고 이렇게 요구했다. "오카다는 나와라! 국가를 위해 죽어라!" 늙은이 한 명이 고개를 내밀고 나오자 장교들은 그를 총으로 쏘아 죽인 후, "오카다를 죽였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카다의 처남이었다. 군부의 팽창 및 전쟁에 반대했던 재무성 장관, 군의 원수, 군사학교 교장 등이 모두 암살되었다. 반란이 진압된 후 장교들은 엄격히 비밀이 유지된 재판물을 받았다. 판결문은 장교들에 대해 이렇게 두둔하고 있다.

젊은 장교들은 순수한 뜻에서 공부하고 생각했다....어느 순간 이들은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력을 잃어버렸다....이 젊은이들은, 천황을 모시는 각료들이 <런던 해군력 억제 조약> 문제에 있어 대일본제국이 마땅히 취해야 할 정책을 오히려 방해했다고 생각했다. 이 젊은이들은, 각료들이 법의 힘이 미치지 못 하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률적 수단으로는 이 각료들을 응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각료들에게 하늘의 징벌을 내리기 위해 초법적 수단을 택했다.

그 동안 일본이 거쳐왔던 사회 심리, 정치 심리의 변화과정을 살펴 보라! 이 청년 장교들의 반란은, 미국과 영국에 대해 적대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믿는 각료들을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닌가! 1931년 이후 정치적 암살로 인해 수상 두 명, 장성 한 명, 재벌 한 명, 금융계 지도자 두 명이 암살되지 않았는가! 이 암살자들을 기리는 사원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심지어 1934년에는 미국과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당시 일본에 머물던 찰리 채플린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1935년에는 미국의 야구 영웅 베이브 루스를 일본에 초청하려고 했던 나가사키 가스케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일본 전체가 <전쟁 심리>에 이렇게 뜨겁게 달아 오른 상태에서 구성된 새 내각은 소련과 전쟁을 벌이는 대신에, 중국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길이라고 판단했다. 1937년 7월, 일본은 아무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시작했고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 중국 해안 지역 전체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표는 1939년까지 일본이 구축한 기반을 보여준다.

본토: 일본: 148,756 평방마일: 72,222,700명

1895: 대만: 13,390 평방마일: 5,212,719명

1895: 페스카도르: 50 평방마일: 60,000명

1905: 사할린: 13,930 평방마일: 331,949명

1910: 한국: 85,228 평방마일: 22,355,485명



1915: 요동: 1,438 평방마일: 1,656,726 명
 1919: 위임통치: 829 평방마일: 331,949 명
 1931: 만주국: 503,013 평방마일: 35,338,000명
 1939: 중국 해안지대: 900,000 평방마일: 150,000,000명

이를 더하면 면적으로는 1백 7십만 평방 마일이 되며 인구로는 3억 명 가까이 된다. 중일전쟁에 의해 지금까지만 해도 약 2백만에서 2백5십만 명의 중국인이 숨졌고 4천만 명이 내륙지방으로 피난갔다. 서방 열강의 중국에 대한 투자 손실은 모두 8억 달러 안팎인데, 그 중 절반은 영국의 투자였고 2억 달러는 미국의 투자였다.

1905년 한국을 집어삼키는 데에서 출발한 일본의 미카도이즘의 침략이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과 손을 잡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²¹ 한 번 살펴 보자. 만주, 중국,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알바니아,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가 차례로 하나씩 이들 전체주의 진영에 의해 정복당했다. 앞으로도 이 정복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나라들이, 전체주의의 정복 전쟁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착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나라 차례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다. 유럽 국가의 절반이 지도에서 사라졌으며 나머지 국가들 역시 "우리 차례는 언제일까?"라는 공포에 빠져 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에 의해 이러한 나락으로 전락했다.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와는 아무 관계없어!"라는 생각이 전체주의 진영의 힘을 키워주었던 것이다. 모든 국가가 순전히 이기주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 어느 나라도 이 나락을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치러내고 있는 전쟁이 곧바로 백인²²들을 향해 겨냥져 있다는 진실을 외면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 참혹한 양상은 이 진실을 또렷이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일전쟁에서 중국 안의 외국인들, 특히 미국인들에게 닥친 운명을 보라!

²¹ 우파 전체주의는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미카도이즘으로 구성된다. 이중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사상적 내용이 가장 풍부하고 가장 먼저 정립되었다. 극단적 광기를 보인 것은 독일의 나치즘이다. 극단적 침략주의 성향을 띤 것은 일본의 미카도이즘이다. 일본의 만주침략(1931) 및 중일전쟁(1937)은, 1938년부터 시작된 나찌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과 체코 합병에 앞선다. 나치의 침략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의 뇌관은 중일전쟁으로 보아야 한다.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1939.9), 일본의 진주만 공습(1941.12)보다 훨씬 전에 일본은 중일전쟁에 의해 이미 세계대전의 뇌관을 터뜨린 셈이다. 우남은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²² 미국을 뜻함.



5. 외국 기사를 내쫓아라 (생략)
6. 외국 선교사를 내쫓아라 (생략)
7. 레이디버드호(號)와 패네이호(號)의 침몰 (생략)
8. 중국 안의 미국인들 및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닥친 운명 (생략)
9. <아홉 나라 조약> 해당 국가들의 회의

중일전쟁은 미국을 매우 난처하고 괴로운 처지로 밀어 넣었다. 지난 30년동안 미국은 일본과 평화스런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일본의 도발을 용납할 것인가 혹은 그에 맞설 것인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만 하는 길목에 서 있다. 결정을 눈 앞에 둔 채 매듭짓지 못 하고 있는 처지는 항상 괴로운 법이다.

상황을 더 난처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 <아홉 나라 조약>²³ 등 여러 조약에 의해 중국의 영토 보전과 독립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중국은 <아홉 나라 조약국>들에게 일본의 침략을 대한 대응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아무런 행동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대담한 도발은 모든 문명세계에게, 일본이 세계 전체에 대하여, 특히 미국에 대하여 매우 위험스런 존재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좀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미국의 의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침략 초기 단계에 미국이 좀 더 적극적 태도를 취했다라면 일본을 억제시켜서 중국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못 한 것은 미국 국민의 여론이 단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중일전쟁 초기에 미국 국민이 확실한 태도와 지지를 미국 정부에게 보였다면, 유럽과 아시아 양쪽에서 일어난 국제적 규모의 강도질²⁴을 전쟁 없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 정치 및 세계 정세에 대한 국민 대중의 무관심과 혐오 때문에 미국 정부는 매우 천천히 움직일 수 밖에 없었다. 4년 전에 중일전쟁이 시작된 후 전개된 일련의 사태 덕분에, 지금에 이르러서야, 미국 국민은 자기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진실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아홉 나라 조약>은, 중국을 열강들끼리 갈라먹으려는 경향을 막자는 것이 그 핵심 목적이다. 일본이야말로 중국에 관한 <문호 개방> 정책과 <아홉 나라 조약>의 최대의 수혜자이다. 어떤 열강이든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문호 개방> 정책 덕분에 일본은 만주에 진출할 수 있었고, <아홉 나라 조약> 덕분에 중국은 일본이 집어삼킬 수 있는 무주공산(無主空山) 상태로 머물렀던

²³ 1922년 워싱턴에서 열린 <해군력 억제 회의>에서, 중국의 독립, 영토 보전, <문호 개방> 등을 정한 조약임.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이 서명했음. 중국의 독립 및 영토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외국 무역을 하는 모든 항구는, 그 항구가 어느 나라의 영향력 아래 있든지, 다른 나라의 배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듦. 이 조약은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중국의 독립과 영토를 유지한 채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중국의 문호 개방> 정책은 미국의 기본 전략이 되었음.

²⁴ 앞서 전체주의에 관한 주석에서도 밝혔지만, 만주사변(1931)과 중일전쟁(1937)은 나치 독일의 일련의 도발—오스트리아 합병, 체코 합병—보다 먼저 일어났다. 우남은, “만약 미국과 영국이 중일전쟁 초기에 단호한 대응을 했으면 나치 독일의 도발이 늦추어지거나 혹은 억제되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것이다. 1931년 일본은 만주를 집어삼킨 후, 다른 열강이 만주에서 활동하는 금지시킴으로써 <문호 개방> 정책을 휴지로 만들었다.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해 미 국무장관 헨리 스티imson(Henry Stimson)은 대응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영국 외무상 존 싸이먼(John Simon)이 미적거렸다. 그 결과 국제 정치에 있어 적법한 질서를 세울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1937년 7월 7일, 일본은 중국 전체를 침략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무려 2 개월 이상 지난 9월 20일에야 영국 외무상이 중일전쟁에 대하여 <아홉 나라 조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라 10월 30일 부르셀에서 <아홉 나라 조약국> 회의 개최가 계획되었고, 회의 개체 통보는 10월 21일에 일본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은 이미 10월 초에, <아홉 나라 조약>이 이미 아무 효력이 없는 죽은 문서, 혹은 중일전쟁에는 적용할 수 없는 조약이라는 주장을 했다. 일본은 10월 27일에야 <아홉 나라 조약국> 회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아홉 나라 조약국> 회의는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 사주한 회의로서, 중국-일본 사이의 정당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일본은 지금 방어전쟁을 치르고 있다...<아홉 나라 조약>은 어차피 현실성이 없는 조약일 뿐이다.”

일본 여론들은 중일전쟁을 '성전(聖戰)'이라 부르며, 일본이 참여하기 거부한, 따라서 일본의 양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아홉 나라 조약국> 회의가 동아시아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11월 13일, 일본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아홉 나라 조약국> 회의는, 1) 즉각적인 휴전, 2) 중재에 의한 문제 해결, 3) <아홉 나라 조약>의 근본정신에 따른 평화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채택했다.

호소문은 평화를 위한 평화로운 수단인 것처럼 보인다. 단지 하나만 부족할 뿐이다. 강제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도쿄의 외교관들은 국제연맹 측의 이 바보스런 조치를 비웃었던 것이다.

미국은 독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일본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위험하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와 조약을 맺는 국가는 재앙적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중일전쟁을 “방어적 전쟁”이라고 부른다.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집주인과 싸움이 났을 때, 그 강도는 “방어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일본인들은 또한 중일전쟁을 ‘성전’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지배자들이 태양신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전쟁 심리>이다. 그래서 이들은 중일전쟁이 중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태연히 이야기할 수 있다. 권총을 든 강도와, 그 앞에 죽어 나자빠진 집주인—이 둘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식이다.

미국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빠져있다. 한편으로는 이 골 아프고 혼란된 세계 곳곳에서 미국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 관해서는, 미국은 <아홉 나라 조약> 서명국으로서 중국의 독립과 영토를 보호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면, 전쟁이 아닌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국민들의 평화주의, 고립주의 여론이 존재한다. 미국의 국내 및 국제 정치 이슈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다. 그런데 평화주의자들과 직업적 프로파간다꾼들의



영향력 때문에, 또한 지난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경험 때문에 나라 밖의 문제에 깊게 발을 담그는 것에 대해 미국인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정부는 정말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아홉 나라 조약국> 회의에 참석한 미국 외교관들이, 혹시라도 국내에서 “미국을 다른 나라의 일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얼마나 조심스럽게 문서를 작성했는지 보면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처지를 알 수 있다.

결국 <아홉 나라 조약국> 회의는 1937년 11월 20일, 기약 없는 무기한 휴회²⁵에 들어갔다. 회의에 참석했던 나라들은 미국의 ‘엄정 중립’ 정책이 중일전쟁을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망쳤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제 조약에 의해 일본을 억제시키려고 했으면 미국이 제안했듯이, 1931년 만주사변 때 했어야 되었다. 그 때 미적거렸던 영국이, 그로부터 6년이 지나 중일전쟁이 터지자 <아홉 나라 조약>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그러나 미국 역시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 하다. 애초에, 침략국 일본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취할 뜻이 없었거나 혹은 취할 처지가 못 되었다면, <아홉 나라 조약국> 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되었다. 미국 외에는 일본에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도덕적, 경제적 힘을 가진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아홉 나라 조약국> 회의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미국민들이 해외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민들은 일체의 해외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 때문에 미국이 <아홉 나라 조약국> 회의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 했을 것이다.

회의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결코 놀랄 일도 아니고 실망스러운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공할 싹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은 아직,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강한 열강이든 약한 열강이든 얇은 얼음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만약 모든 나라들이, 당장 국제적 강도질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강도질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힘을 모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게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은 너무 좁은 시야에 국한된 개별 국가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집단적 안보를 위해서는 아무런 행동을 할 뜻이 없었다.

열강들은 일본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일본을 삼십 년 전의 이류 혹은 삼류 국가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일본이 세계 전체를 무시하는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 했다. 그래서 일본이 서구 열강의 의견과 ‘우호적 설득’을 존중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던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경제적 힘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은 전혀 생각하지 못 했던 것이다.

회의 중에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 및 중국에 대한 군수품 차관 제공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다음과 같이 위협하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만약 미국이건 어느 나라건 <아홉 나라 조약>에 기초해서 더 이상의 도발을 한다면, 이는 일본에 대한 압력이 된다. 일본은 이러한 나라의 생각을 뜯어고치고야 말 것이다.”

이렇듯 일본은 <아홉 나라 조약국> 회의에 참석할 것을 거부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

²⁵ 우남은 ‘다음 회의의 시각, 장소를 결정하지 않은 휴회’(adjournment sine die)라는 외교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때 ‘sine die’는 라틴어로서, ‘날짜를 박지 않은’(without day)이라는 뜻이다.



을 좌절시켰다. 그 순간에도 일본의 육군과 해군은 타나카 메모리얼에 담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었다. 중국 뿐 아니라 세계 전체를 향해!

10. 일본의 정복 전쟁과 그 반작용 (생략)

11. 미국, 해군력 증강에 착수하다(생략)

12. 일본의 프로파간다를 막아야 한다(생략)

13. 미국의 평화주의자들(생략)

14. 평화주의자들은 간첩과 다름없다

내가 평화주의자들을 간첩과 다름없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미국 안에는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 기타 다른 체제전복 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체제를 타도하고 그 자리에 다른 체제를 세우고자 한다. 물론, 평화주의자들은 이런 체제전복 분자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 즉 미합중국이라는 공화국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평화주의자는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 등을 지지하는 체제전복 분자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평화주의자는 미국을 지지하지만, 체제전복 분자들은 미국이라는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평화주의자와 체제전복 분자들이 일치한다. 양쪽 모두 미국은 전쟁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들의 말은 결국 이렇게 요약된다.

“우리에게 평화를! 우리에게 평화를! 아무렇게 되더라도 평화를!”

옛날 중국에 노(魯)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다. 진문공(陳文公)의 대군이 노를 침략했다. 그러나 성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아무 군사도 보이지 않자 침략군은 몹시 놀랐다. 침략군은 집집마다 돌아다녀 보았다. 남자, 여자, 아이들이 일상 생활을 하느라 바쁠 뿐이었다. 학생은 공부하고 학자는 고전을 연구하고 시인은 시를 낭송하고 음악가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침략군의 장수들은 서로 의논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곳은 확실히 공자의 나라이군.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야. 이곳 사람들을 해쳐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침략군들은 무기를 거두고 이 <공자의 유토피아>를 내버려둔 채 돌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좀 사정이 다르다. 현대의 기계화된 군대는 집집마다 거리마다 돌아다니며 자기가 정복한 사람들이 과연 공자를 따르는지, 민주주의자인지, 나치인지, 미카도주의자인지 구별하지 않는다. 까마득히 높은 하늘을 날아가면서 폭탄을 퍼붓기 때문에 도시와 인구의 절반쯤을 박살내기 전에는, 저 아래 땅 위에서 사는 사람이 평화주의자인지조차 알 수 없다. 현대의 ‘문명화된’ 야만인들은 공자 시대보다 훨씬 더 잔학하다. 이들은 불태우고 죽이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이런 여건에서는, 평화주의자의 본뜻이 간첩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의 결과는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다.

아직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을 위해 또 한가지 이야기를 하자. 그토록 평화를 사랑한다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로 가서 평화주의 운동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미국은 군국주의적 국가가 아니다. 군국주의적이지 않은 이 나라에서 평화를 설교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지 말고



베를린, 도쿄, 로마로 <평화의 선교사>를 보내는 데에 돈을 써야 한다. 불 난 곳에 가서 불을 꺼야 하는 것 아닌가!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의 손발을 묶고자 하는 평화주의자들이야말로 체제전복분자들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값아먹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기독교²⁶에도 평화주의 풍조가 퍼져있다. 물론 훌륭한 크리스찬은 평화를 옹호한다. 이 땅의 평화와 이웃에 대한 선의를 가르치기 위해 이 곳에 오셨던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양심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이다. 따라서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는다면 세상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최근에 추구해 온 평화는 참된 크리스찬의 평화가 아니다. 그 대가 무엇이든 정의와 의로움을 추구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태도를 버리고, 상대방을 달래서 평화를 이루려는 세속의 지혜를 따르고 있다. '현실적이며 신속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찾는 것이다. 그 결과, 세상을 빛으로 이끄는 대신에 세상을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과거 1905년에 일본이 한국의 마지막 숨통을 조르고 있었을 때 미국의 저명한 감리교 지도자인 L 박사가 뉴저지에서 1만 명이 넘는 청중에게 연설한 적이 있었다. 이 강연회는 미국의 국내 여론을 조작하려는 일본인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 강연회에서 L 박사는 이렇게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주여! 한국이 영원히, 영원히 일본의 지배 밑에 있도록 해주소서, 아멘!"

1919년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폭력 독립운동인 3.1. 운동을 펼쳤을 때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를 지지했다. 한국의 비폭력 독립운동은 인도의 간디의 운동보다 더 일찍 시작된 것이다. 3.1. 운동 때 전국 약 3백 개 도시에서 만세를 불렀다. 남녀노소의 만세 운동에 대하여 일본의 군대, 경찰, 비밀경찰은 야만적으로 탄압했다. 일본의 만행, 특히 기독교도들에 대한 학살, 집과 교회에 사람을 몰아넣고 태워 죽인 행위 등에 대한 정보는 미국의 국내 여론을 크게 자극했다.

미 상원은 한국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관심을 표명했다. 당시 미 상원의 회의록을 보면 한국의 민족 운동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 및 결의안 발의로 가득 차 있다. 셀든 스펜서 상원의원이 1919년 6월 30일에 발의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국무장관은 상원에게 한국의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예를 들어, 지난 1882년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어졌던 우호조약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위해 관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고해야 한다.

이 시기에 많은 미국 교회들이 한국인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며 일본의 잔악한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은 '한국의 벗들'(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독립운동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벗들> 조직원들은, 한국 안에 선교조직을 가지고 있는 뉴욕의 미국 선교단들을 접촉하여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유는 정치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풍조에 저항하여, <한국의 벗들>을 위해 활동한 저명한 목사인 플로이드 톰킨스 박사는 이런 연설을 한

²⁶ 월남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매우 경건한 기독교적 분위기가 지배했다. 이 대목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우남의 신앙을 보여줌과 동시에, 미국의 기독교 전통에 직접 호소하는 그의 노련한 설득력을 보여 준다.



적이 있다.

“잔악한 짓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누이가 강패한테 강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방의 옷장 속에 숨어서 하나님께 누이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종류의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패를 두들겨 패서 누이를 구한 후 옷장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제발, 톰킨스 박사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미국 안에 많아지기를! 물론 선교사들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선교사들이 정말 진지하게 중립을 지켰다면 아무 불만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악랄한 지배 밑에서 과연 중립을 지킬 수 있었을까? 서양 선교사들은 감히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일부 선교사들은 순전히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 일본을 위해 발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많은 비기독교 한국인들이 선교사들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친일 성향이 있다고 비판하게 된 것이다.

미국인들은 군국주의, 제국주의, 호전성을 비판한다. 거대한 해군, 거대한 육군, 세계 최대 규모의 전함, 징집제도 등과 같은 것들은 미국인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전쟁을 거부한다!”

“폭탄 제조업체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거부한다!”

“일선으로 가느니, 감옥으로 가겠다!”

“전쟁이 나면 대통령부터 총알받이가 되라!”

“전쟁을 위한 세금을 거부한다!”

1940년 봄 워싱턴 D.C.에서 어느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 벌어지면 얼마나 더 많은 목숨이 죽어나갈까요?...이것은 제 아이들의 애비로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목숨을 걱정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아이들의 목숨조차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몬타빌 프라워즈의 ‘일본은 미국의 여론을 점령했다’라는 책을 보자.

어느 날 한 노인이 차우타우카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했다. 이 강연회는 일본 문제를 다루었다. 강연이 끝나고 강사는 길을 가다가 이 노인이 두 명의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 노인의 말은 상당수 미국인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강연이 맘에 들지 않아요. 전혀 맘에 안 들어요. 전혀!...어쨌거나 일본 놈들은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문제를 안 일으킬 것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든 말든, 그건 다음 세대가 알아서 대응할 일이죠.” 이 노인과 같은 사람들은 평화로운 목초지에서 푸른 풀과 강통 통조림을 먹는 짐승으로 태어났어야 한다.

한편 일본인들의 심리는 어떨까? 일본의 어느 여인이 팔에 어린 아들을 들고 ‘무명 용사의 유해’를 담은 함을 들고 행진하는 군인들을 보았다. 이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들! 아빠도 저처럼 제국을 위해 영광스럽게 죽었다. 너도 자라면 네 아빠처럼 영광스럽게 죽어야 돼!” 이



엄마는 결코 이상한 엄마가 아니다. 일본 국민 전체가 이런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국을 속 빈 강정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인들이 평화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덕분에 <전쟁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력이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미국민의 심리가 취약한 듯이 보이는 점이 바로 일본과 독일로 하여금 매우 위험한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전쟁을 하나의 사상으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은 전쟁 분위기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반면, 평화를 하나의 사상으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은, 최후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전까지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무의식(subconscious unwillingness)에 의해 단단히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²⁷

일본인들은 미국의 이러한 정신적, 도덕적 혼란을 백 퍼센트 활용한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전체주의 열강들은 미국 대륙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거듭 떠벌린다. 자신들이 유럽 대륙과 아시아에 관해 “새로운 질서”를 확립시킨 이후에는 오직 평화와 조화만이 있을 뿐이라고 선전한다. 이런 선전은 미국의 평화주의자들과 고립주의자(isolationist)의 입에 의해 메아리처럼 반복되어 전체주의자들의 귀를 즐겁게 해 준다. 전체주의자들의 대변인인 찰스 린드버그, 윌러 상원의원, 토비 상원의원, 클라크 상원의원 등과 같은 고립주의자들은 협상에 의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파시스트들이 만드는 낙원에서는 사자와 양이 나란히 뒹굴 수 있다는 말인가? 평화주의자들은 “전쟁은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 한다”라며 전쟁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평화주의를 기독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를 행동과 동일하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착각일 뿐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원수의 범죄를 너그럽게 양해하고 그 잘못된 행동에 굴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크리스찬들은 평화주의가 현실로부터의 도피라는 진실, 이른바 ‘전쟁을 거부하는 양심적 반대세력’이란, 주관적으로 얼마나 진지한가에 상관없이, 옳고 그름에 관한 이슈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며, 그 굴종적 태도에 의해 침략자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살인자가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살인자와 이성을 논할 수 없듯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칼을 뽑아, 강패 국가에 대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많은 고귀한 크리스찬들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력에 대해 일종의 정서적 혐오감을 느끼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독일 황제를 교수형에 처했고 독일에게 그토록 가혹한 배상금을 물린 것이다. 이제 이러한 풍조가 극단에 이르렀다.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모든 전쟁은 악이다. 모든 전쟁은 악마의 소행이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거 1917년보다 이슈는 보다 명확해졌다. 문명과 기독교 자체에 대한 위협은, 1914년 여름 독일 황제가 헬멧을 쓴 군대를 보내 프랑스와 벨기에를 공격하게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평화주의 풍조는 심각한 내부적 위험이다. 생명과 권리를 위한 싸움은, 전쟁에 반대한다는 사상에 의해 치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싸움은 육체적 용기, 피, 땀, 노력, 눈물을 요구한다.

지금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쟁은 이 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인들이 진정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자 한다면, 국민의 정신이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교육 과정이

²⁷ 이 구절은 일본의 국민 심리와 미국의 국민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특히 아직 ‘무의식’(subconscious)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뀌어야 한다. 모든 시민과 정당이 지지하는, 통일된 방위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애국은 정당을 초월해야 한다. 국가의 외교 및 국방에 관하여 통일된 정책이 결정되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자유, 재산, 심지어 생명까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론이 분열되면 싸움을 견뎌낼 수 없다. 국가가 망하면 무엇이 남겠는가?

이제 불길이 번져서 타 들어 오고 있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불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일부 미국인들의 담론은 전혀 미국적이지 않다. 심지어 반미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미국 역시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외의 적뿐 아니라 국내의 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국외의 적뿐 아니라 국내의 적에 대한 방어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국가와 국가 체제와 국가 안보와 국가 명예를 지키는 것이 시민의 첫 번째 의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짐승을 보라. 짐승의 첫 번째 본능은 자신의 보금자리, 자신의 새끼들, 자신의 집단을 지키려는 본능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기본적 본능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료 시민이 얻어 맞고 모욕당하고 걷어차이고 살해당하고, 그 집과 시설이 파괴되고, 해군 함정이 폭탄에 맞아 침몰하고, 국기가 끌어내려져 짓밟히더라도 여전히 태평하다. 문명과 인류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적에 대하여 분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정부가 적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왜 다른 나라 정부를 공공연히 비방하는가?”라고 나무란다. 일본 군인이 물리력을 사용해서 미국인을 공격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담화를 통하여 비판한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미국과 그 국민을 방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일반 미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15.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민주주의 원칙을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개인주의자들이다. 정부의 힘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국가의 기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인민이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달리 민주주의는, 정부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미국의 예를 보자. 이 원칙에 따라, 연방 정부이건 주 정부이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짐으로써 시민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이 분리되어 서로 견제해야 한다. 의회 조차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자기들끼리 견제해야 한다. 정당들 역시 이러한 상호 견제의 원리에 의해 작동해야 한다. 한마디로, 모두의 이익 및 단일 목적을 위한 일사분란한 체제가 될래야 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그 자리에 독재체제를 세우는 일이 없도록, 집단적 힘, 혹은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²⁸

이러한 극단적 개인주의의 발전과 함께 연방이 아닌 주(州) 이익을 우선으로 삼는 풍조가 강해졌다. 지역감정은 여론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킨다. 일부 시민은 정부가 위태로워지든 말든,

²⁸ 미국 사회의 이러한 특질에 대해 마이클 샌델은 “절차 공화국”(Procedural Government)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고, 민주주의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생각은 잠시도 해 보지 않은 채, 무조건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 고집²⁹한다.

모든 것에 있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부작용이 있다.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자유의 고마움을 모르고 이를 남용하게 된다. 사람들은 미국이, 자유를 누리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라는 점을 실감하지 못 한다. 그 자유를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 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조화시키지 않는 한, 미국의 고귀한 유산인 자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 한다. 국가와 자유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없이, 자기 자신의 일에 매몰되어 너무 바쁜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 방위 문제는 거의 믿을 수 없는 지경까지 무시되어 왔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애국심과 국민감정에 대해, 국제 분쟁과 전쟁의 원인이라고 폄하하는 풍조까지 생겼다.

한편 전체주의 열강들은 미국 안에서 전체주의 사상을 선전하기에 좋은 가장 훌륭한 여건들을 발견했다. 소련, 일본, 나치, 파시스트들이 미국 안에 이념 조직을 만들었다. 최근의 체제전복 운동들은 모두 이 조직들과 관계가 있다. 심지어 어떤 조직은 미국 정부를 전복시키고 자신들의 이념에 따른 정부를 만들 계획을 공표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다. 미국을 갇아먹는 "이즘"들은 <늙은 유럽>(old world)의 강도 국가들과 얽혀있으며 국내와 국외, 양쪽에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이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라는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나, "우리는 민주주의의 안전을 위해 이 전쟁—제1차 세계대전(역주)—을 싸우고 있습니다"라는 우드로 윌슨의 말을 잊어버린 것일까? 미국인들은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라고, 그래서 어떤 나라도 미국을 감히 공격하지 못 할 것이라고 안이하게 믿고 있는 것일까? 미국인들은, "영클-쌔³⁰이 다 알아서 할 거야"라고 느긋하게 말한다. 그러나 국민의 단결된 지지가 없으면 미국 역시 중국, 프랑스, 그리스와 같은 운명을 겪을 수 있다. 미래를 멀리 내다볼 줄 알고 나라를 사랑하는 미국의 지도자들이라면, 이렇게 속 편하고 태평한 미국인들, 전체주의 국가들이 지배하는 지구에서 미국 혼자서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미국인들을 깨우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 갈등을 일으킬 때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인들이 외국의 편을 들어 미국 정부의 입장을 악화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전혀, 비애국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은 전체주의자들처럼 편협한 애국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사고방식이다. 전체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국가 방위를 위해 단결되어 있는, 내부가 통일된 나라가 아니다. 군사력을 사용하여 영토를 확장하려는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 민주주의의 약점은 치명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과 전쟁을 벌여도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보인다.

일본, 소련, 독일, 이탈리아가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에 불과하다. <늙은 유럽>에서 생겨난 모든 '이즘'들이, 가능하다면 <평화적 침투>라는 익숙한 수법을 사용하여, 필요하다면 폭력적 침략을 통하여, 미국에 파고들 기회를 노리고 있다. 미국이라는 위대한 공화국이 건국된 직후, 미국인들

²⁹ 마이클 샌델은 이러한 심리에 대해 "고삐 풀린 자아"(Unencumbered Self)라고 비판한다.

³⁰ 미국 정부의 아이콘



은 <1776년의 정신>³¹이 전세계로 퍼져 나가기 원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진취적 기풍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시들어 버렸다. 원료 확보와 상품 시장을 위한 정책, 즉 “달러 외교”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개인주의는 변질되어 “다른 국민, 다른 인종의 일은 그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세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면서, 세계의 원료와 시장을 원하는 상태가 ‘고립주의’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미국인들은 무역에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국제 사회에서의 의무를 떠맡는 것을 회피했다. 눈앞의 실제적인 상업 이익이 사상의 실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민주주의와 시장주의라는) 사상을 실현하면 전세계가 미국의 지도력 아래, 미국 상품의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대한 비전은 존재하지 않았다³².

전체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정치적 의식화 덕분인지 혹은 군대의 규율 덕분인지, 정부를 위해 싸우고 죽을 태세가 되어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심각한 위기가 오지 않는 한 사회 전체의 복지와 안전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정신 상태 때문에 나치 독일의 침략 앞에 그토록 쉽게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그렇다. 세상은 냉정하다. 과거 1910년에 한국 역시 그런 운명을 겪었다. 그 때 한국은 고립무원이었다. 이씨 조선 정부와 우호 조약을 맺었던 열강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고스란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단지 구경꾼으로 바뀌어서 “한국 사람들은 비겁하고 타락한 민족이야!”라고 비웃으며 킬킬댔을 뿐이다. 이씨 조선 정부와 조약을 맺었던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열강들은 세계 평화를 위한 마지막 제물로서 한국을 바쳤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이제 민주주의 진영은 세계 질서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세계를 삼등분하는 그림을 그린다. 유럽과 아프리카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지배하고, 아시아는 일본이 지배하며, 북중남미는 미국이 지배한다는 그림³³을 제시한다.

얼핏 보면 그럴싸한 그림이다. 먼로 독트린³⁴의 원칙에 따라 북중남미를 미국에 넘겨준다는 데, 유럽과 아시아를 그들에게 주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 그림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첫째, 이 그림은 먼로 독트린의 완성이 아니라 먼로 독트린의 죽음의 시작이다. 전체주의 국가들은 미국을 공격할 힘을 비축할 동안까지만 미국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미국은 북중남미에 걸쳐 절대적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미 미국에 속한 것을 새삼스럽게 미국에 내주는 척하면서, 나머지 세계 전체를 먹겠다는 것 아닌가?

둘째, 이 그림은 민주주의의 죽음이며 인류에 대한 불의의 극치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을 전체주의의 노예로 내어주는 것이다. 나치는 학살을 계속할 것이고, 일본의 “아시아인을

³¹ 1776년에 채택된 미국 독립선언문은 일종의 시민혁명 선언문임. 인권, 자유, 정의에 대한 원칙이 담겨 있음.

³² 우남은, 20세기 후반 팩스 아메리카나 질서를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다.

³³ 지금 보면 황당한 그림이지만, 당시 미국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지 않고 있었다. 즉 미국의 일반 국민 중에는, 전쟁 없이 세계를 3등분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다.

³⁴ 북중남미에 대해 유럽의 영향력을 배제했던 원칙. 19세기 초 미국 대통령 먼로의 독트린 (Moroe Doctrine)에 의해 확립되었다.



위한 아시아"라는 구호는 "일본인을 위한 아시아"라는 현실로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들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런 약속도 하지 말고, 아무런 약속도 믿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 당장 그들에 대해 경제 제재, 경제 봉쇄, 상품 불매 운동을 펼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전체주의 국가들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게 대해야 한다. 미국은 행동해야 한다. 지금 당장!

16. 결론³⁵

나는 극동에 관해 좀 더 희망적이고 좀더 기운을 북돋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지 않을 수 있는, 혹은 미룰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적 프로그램을 실행해 왔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을 위해 일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전체의 삶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군국주의 정신을 배양했고 국민에게, 자신들이 창조주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믿음과, 신(神)의 직계 후손인 미카도에 대한 절대적 충성에 의해 신(神)들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입시켜 왔다. 따라서 일본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이 지시하는 정복 프로그램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에 대한 반대는, 아무리 선량한 뜻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 배경을 철저하게 의심해야 한다. 일본의 행보에 방해가 되는 국가는 부숴버려야 한다. 일본에 대해 도전하는 자는 하늘을 모욕한 것이다.

한국 병탄은 아시아 대륙 정복의 시작이었을 뿐이다. 일본은 아시아 대륙 정복을 "평화적 침투"라고 부른다. 1931년에 만주를 먹고 그곳에 괴뢰 정권을 세운 것도 "평화적 침투"라고 부른다. 1937년에 중국에 대한 기습적 전쟁을 시작해서 무역 도시의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잔인한 야만행위를 한 것 역시 "평화적 침투"라고 부른다. 이제 세계는 인도 차이나와 타이에 대한 일본의 개입에 대해 잘 안다.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 맺은 동맹³⁶에 대해서도 잘 안다. 소련과 맺은 불가침조약³⁷에 대해서도 잘 안다.

또한 이제 일본은 직접적이고 오만무도 한 방법으로 미국을 도발하고 있고 미국인들은 일본의 위협에 대해 실감하게 되었다. 일본은 결코 정의라든지 권리에 대한 배려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일본은 힘의 논리 외에는 다른 어떤 언어도 이해하지 못 한다.

일본이 소련과 맺은 불가침 조약은 도쿄-모스크바-베를린-로마를 잇는 전체주의 연결축을 완성

³⁵ 이 책은 1941년 여름에 시중에 나왔다. 책의 원고는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 아직 나치의 소련 침공(1941년 6월 22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의 대부분 쓰였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책의 인쇄 직전인 1941년 6월 22일에 나치의 소련 침공이 시작되었다. 우남은 나치와 소련 사이의 전쟁에 의하여,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이 코 앞에 닥쳤다고 예견했다. 결론 부분은 그러한 예견 위에서 쓰여져 있다. 결론은 거의 원문 전체를 번역했다. 우남의 정확한 국제정세 분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³⁶ 1940년 9월 27일 베를린에서 맺어졌음.

³⁷ 1941년 4월 13일 모스크바에서 맺어졌음.



한 것 같이 선전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조약을 파기³⁸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조약을 깰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들이다. 조약의 목적은 상대를 당분간 묶어 두기 위함일 뿐이다. 소련은 일본과의 조약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주의 세력에게 계속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일본 역시 시베리아 국경에 계속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 사이의 조약은 실제로는 아무 효력이 없는, 선전용 조약에 불과하다. 시베리아에 존재하는 소련과 일본의 긴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과 남태평양에 대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은 일본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다. 특히 하와이와 필리핀에 존재하는 미국 함대는 일본 내의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억제력이 되어 왔다. 그래서 일본은 그 동안 약간 주춤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기빠 날뛰 일이 벌어졌다. 푸른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 히틀러가 느닷없이 소련을 공격한 것³⁹이다. 이제 물이 흐려져서 진흙탕이 만들어진 만큼 일본은 엄청 바쁘게 낚시질을 하게 될 게다. 이제 일본은 큰 것 한 방을 날릴 때가 되었다.

소련이 나치 독일을 막느라 정신이 없는 만큼 일본은 두 방향 중의 하나로 움직일 게다. 시베리아로부터 전력을 철수하여 남태평양 쪽으로 밀어 붙이는 방법, 혹은 시베리아에 전력을 집중하여 우랄 산맥 동쪽 전체를 먹는 방법, 둘 중의 하나를 택하게 될 게다. 동남 아시아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식민지에 전략 물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남태평양 쪽으로 움직이는 편이 더 유혹적이기는 하지만 미국과의 전쟁을 감수해야 한다는 위험이 있다. 반면에, 시베리아를 정복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우랄 산맥 동쪽에서 캄차카와 사할린까지 단번에 정복할 수 있다. 특히 베링해 서안 지역에 대하여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알래스카로부터 출격하는 미국의 공군 전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 두 개의 방법 중에 어느 편을 택할 지는 첫째, 독일과 소련 사이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둘째, 미국이 일본의 팽창에 대해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두 개의 방법 중 어느 편을 택하든, 일본은 미국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이 보다 높아질게다.

나는 이 책에서, 한국이야말로 일본의 야욕에 바쳐진 첫 희생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조명하고자 했다. 한국의 운명은 세계 자유 국가의 국민들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다. 한 때 자유를 누렸지만 지금 자유를 상실한 여러 나라의 운명과도 분리될 수 없다. 아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전세계의 민주주의 진영이 일본을 패망시켜 다시 섬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 때 평화가 다시 올 게다. 그 때 한국은 세계의 여러 자유 국가들과 나란히 설 수 있을 게다. 그 때 한국은 다시 '아침 고요의 나라'로 알려지게 될 게다.

³⁸ 1939년 8월 23일 모스크바에서 나치 독일과 소련 사이에 불가침조약이 맺어졌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지 약 2년이 지난 1941년 6월 22일, 나치 독일이 소련을 공격함으로써 나치와 소련 사이의 불가침조약은 사문화되었음.

³⁹ 1941년 6월 22일. 우남은 책이 인쇄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의 원고를 고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부록: 타나카 메모리얼 해설 (필자)

이 메모리얼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남 자신이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에 바탕해서 '타나카 메모리얼'에 대해 쓰고 있기 때문이다. 1929년 중국어로 쓰인 '타나카 메모리얼'이라는 문서가 나돌았다. 이 중국어 버전은, 1927년 일본 수상 타나카 기치(田中 義一)가 히로히토 텐노에게 바친 문서를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그래서 이 문서에는 '타나카 메모리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다시 영어 등 다른 나라말로 옮겨져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이 문서는 일본의 세계 지배를 위해서는 만주, 중국, 동남아, 인도를 차례로 정복해야 하며 미국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블루-프린트가 묘사되어 있다. 이 문서가 특별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만주국 수립, 중일전쟁, 진주만 공습, 동남아 전쟁 등 일본의 행보가 이 문서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일본 수상 타나카 기치>

일본이 패망한 이후 어디에서도 타나카 메모리얼의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에 의해 이 문서에 여러 가지 디테일 상의 오류—수상이 작성했다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오류—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한마디로 1929년 중국 버전은 위조 문서인 것이다.

그러나 타나카 메모리얼이 당시 일본인의 관점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 또한 1930년 이후 일본의 행보가 정확하게 그 문서가 밝힌 길을 따라 진행했다는 점은 여전히 하나의 커다란 미스터리로 남는다. 이 미스터리에 대한 답은, 1940년 멕시코에 망명해 있던 트로츠키(Leon Trotsky, 1879~1940)가 암살당하기 직전에 공산주의 잡지 '리버티'에 기고한 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로츠키는 레닌의 동지로서 러시아 볼셰비키의 제2인자였으며 러시아 혁명 내전 때에 '붉은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다. 스탈린에 의해 날개가 꺾이자 멕시코로 망명했지만 1940년에 스탈린이 보낸 암살자가 휘두른 손도끼에 맞아 죽었다.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꺾을 수 있었던 것은, 트로츠키가 "러시아 혁명을 유럽으로 수출해야 한



다”고 주장한 데 반하여 스탈린은 “러시아만으로도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스탈린은 일국사회주의 노선을 내세워 권력을 굳혔던 것이다.



<소련 혁명 내전기에 트로츠키는 '붉은 군대'의 사령관을 맡았다. 트로츠키를 성(聖) 조지로 묘사한 볼셰비키 측의 선전 포스터>

트로츠키는 소련 비밀경찰 체카(나중의 KGB)의 창설자인 드제르진스키(Felix Dzerzhinsky, 1877~1926)⁴⁰가 1925년에 입수한 문서를 보았다고 말한다. 1925년은 타나카가 육군 대장으로 예편하고 일본의 최대정당인 리켄세이유카이(立憲政友會)의 총재를 맡은 해이다. 타나카는 예편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전쟁성 장관(1918~1921, 1923~1924)을 지냈으며 1918년부터 1922년에 걸친 시베리아 작전에서 볼셰비키의 '붉은 군대'에 대한 공격을 총괄 지휘한 인물이다. 한마디로 그는 1920년대 초중반 일본의 군사-정치 전략의 총괄 책임자였다.

한편 1925년 경의 소련은 일본에 대한 엄청난 정보 취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주로 일본 공산주의자들의 자발적 협력 덕분이었다. 트로츠키의 말에 따르면 드제르진스키의 스파이가 일본 해군성 사무실에서 일본어 문서를 사진 촬영했다고 한다. 사진 필름이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현상이 끝나자 곧 그 내용은 러시아어로 옮겨졌다. 트로츠키의 주장이 맞다면, 타나카 메모리얼은, 1929년에 나돌은 중국어 버전이 주장하듯이 1927년 7월에 타나카가 히로히토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트로츠키는 이렇게 회상한다.

⁴⁰ 드제르진스키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SD)의 주도권을 잡은 것은 1903년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폴란드 유대인 출신들의 정파인 분트(Bund)가 SD를 주도했었다. 당시 폴랜드는 제정 러시아의 한 부분이었다. 분트는, 1903년 벨기에 부르셀에서 열린 SD 회의에서 첫째, 분트가 독자적으로 당원을 충원하고 둘째, 분트의 문서는 유대인 언어인 이디쉬(Yiddish)로 쓰겠다고 주장했다. 레닌은 이에 대해 맹렬히 반대했고 회의는 주먹다짐으로 번져서 벨기에 경찰이 출동했다. 참석자들은 회의 장소를 런던으로 옮겼다. 결국 분트는 SD로부터 탈퇴한다. 드제르진스키는 폴란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SD에 남아 레닌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바쳤다.



<소련 비밀경찰의 '아버지' 드제르진스키>

1925년 여름 아니면 초가을에 드제르진스키가 나에게, 일본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입수할 예정이라고 흥분해서⁴¹ 말했다. 그는 이 문서가 일본과 미국 사이의 전쟁과 같은 거대한 국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떠벌였다. 나는 그에게 "문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라고 말했다. 그러나 드제르진스키는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이 문서의 중요성을 몰라. 이 문서는 일본을 지배하는 서클 내부의 문서이기도 하지만 미카도가 직접 승인한 문서야. 이 문서에는 중국을 점령하고 미국을 파괴하고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어!"

문서를 보는 순간 그 계획의 원대함, 미카도를 둘러싸고 있는 최상층 관료들이 품고 있는 냉혹하고 잔인한 사상이 나를 전율시켰다. 그 문서의 구성과 내용 자체가 그 문서의 진본성을 고스란히 웅변하고 있었다.

우남이 1930년대에 본 버전은 트로츠키가 1925년에 본 버전이 아니다. 우남의 버전은 1929년 중국어로 만들어진 '변형된 버전'이 다시 영어로 옮겨진 것이었을 게다. 결국 문제는 중국어 버전이 위조냐 아니냐가 아니라, 중국어 버전이 담고 있는 내용을 담은 진짜 문서가 존재했냐 아니냐의 문제다. 그리고 이점에 대해 트로츠키는 "나는 그 문서를 1925년에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레닌과 동급의 사회주의 혁명가인 트로츠키가 이런 문제에 관해 거짓말을 할 정도로 조잡한 인간은 결코 아닐 것이다. 트로츠키의 증언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마도 중국어 버전은, 스탈린이 중국 공산당을 통해 1929년에 일부러 흘린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스탈린은 시치미를 떼고 1941년 4월에 일본과 불가침조약을 맺었던 게다. 한편 스탈린이 그토록 증오하고 두려워했던 트로츠키가 1940년에 "스탈린이 문서의 필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한 만큼, 문서는 당연히 파괴되었을 것이다.

⁴¹ 트로츠키는 드제르진스키에 대해 "거침없는 상상력과 매우 쉽게 흥분하는 기질을 가진,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평한다.



부록: 우남의 생애 및 주요 사건 연표 (이 책의 출간 전후까지)

- 1875: 우남 탄생. (황해도 평산군 능내동)
- 1876: 이씨 조선의 개항
- 1894: 동학난, 갑오경장, 청일전쟁
- 1895: 우남, 배재학당에 입학.
- 1896: 우남, 개화/독립운동 단체인 협성회 조직. <협성회보> 주필 맡음.
우남,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조직.
- 1898: 우남, 매일신문 창간 및 사장 역임. 데국신문(제국신문) 창간 및 편집인 역임.
- 1898~1904: 우남, 체포되어 투옥됨. 사형수가 됨. 복역 중 깊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됨.
우남, 복역 중 영한사전 집필(미완성).
- 1904: 러일전쟁 발발. 이씨조선 정부 내에서 개화파가 정권 장악.
우남, 석방되어 민영환의 밀서를 가지고 도미. 미국 대통령과 면담.
- 1905: 을사보호조약
- 1907: 우남, 조지 워싱턴 대학 졸업
- 1908: 우남, 하버드 대학원 졸업
- 1910: 우남, 프린스턴 대학 철학박사 취득
- 1910: 한일합방
- 1912: 우남, 귀국 후 독립운동에 관여하다가 다시 도미
- 1914~1918: 제1차 세계대전. 일본은 승전국(미국, 영국과 같은 진영)이 됨.
일본은 요동반도를 획득하고 중국 내의 독일 자산을 접수함.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 운동이 시작됨
- 1917: 러시아 혁명 및 소련의 등장
- 1918~1922: 러시아 내전 시기. 일본은 시베리아에서 4년 동안 러시아 '붉은 군대'와 싸움.
- 1919: 우남, 3.1 독립운동에 깊게 관여함.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에 취임.
- 1922: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이 정권 장악
이 무렵에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 나치즘 운동이 미약하게 시작됨
- 1925: 우남, 대한민국임시정부 내 공산주의 운동가들과 무장투쟁 노선 운동가에 의해 탄핵됨.
다가 오고 있는 전체주의 사회의 공포를 그린 카프카의 소설 '재판과정'(심판) 출간됨.
- 1929: 세계 대공황에 의해 각국의 경제가 파탄에 빠지고 극도의 사회불안이 시작됨
히틀러의 나치가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함
- 1931: 일본, 만주를 침략해서 장악. 이듬해 2월에 '만주국'을 세움.
- 1933: 히틀러, 독일을 장악
- 1934: 우남, 프란체스카와 결혼
- 1937: 중일전쟁 시작
- 1938: 나치 독일, 오스트리아 합병 및 체코 합병
- 1939.8.23: 나치 독일과 소련 사이에 불가침 조약



1939. 9.1: 나치 독일, 폴란드 침공 →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소련과 미국은 아직 참전국이 아님)

1940. 9.27: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미카도 일본 사이에 (추축국) 동맹 체결

1941. 4.13: 일본과 소련 사이의 불가침 조약

1941. 6.22: 나치 독일, 소련을 침공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의 참전국이 됨)

1941. 여름: 우남, 'Japan Inside Out' (일본을 벗기다) 출간

1941. 12.7: 일본, 진주만 공습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참전국이 됨)

